

온라인음악 경쟁 불붙었다

네이버 4일 서비스 개시...다음도 9월 진출

백스가 유료화를 선언한 후 대형 인터넷포털 업체들이 온라인 음악시장이 속속 뛰어 들고 있어 시장규모가 재빨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대표 김범수)이 4일 음악스트리밍(인터넷 실시간 전송·재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음악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NHN은 뮤브뮤직을 운영하는 음반물 유통 전문회사 미디어레코딩(대표 유재학)과 제휴해 고음질 스트리밍과 고품질 뮤직비디오 서비스를 오프라인 주점형 음악서비스(AOD)시장이 뛰어들었다.

김영은 NHN 커뮤니케이션스 부장은 "고음질·고화질 서비스와 함께 음악 정보 검색을 강화해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NHN은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회원 수만 190만명으로 네이버 정보검색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연계되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대표 이재중)도 다음날부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음악사업에 뛰어들 계획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YBM서울음반, 음악서비스자회사 오이뮤직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은 음반물을 활용한 다양한 웹포털 부산 인터넷서비스와 카페·메일 서비스에 음반물 제공하는 등 포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은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회원 수만 220만명, 음악 관련 커뮤니티도 19만개 이상 확보해



*온라인은 유료, 기존 온·오프라인 모두 저가
*온·오프라인 합계 시장 규모 추정

주요 포털 음악서비스 현황

업체	서비스명	비고
다음	2004.9 (예정)	음악저작권사, 음악저작권 19만개
NHN	2004.8	음악정보검색 기능강화, 앨범 이미지 확대화
이후코리아	2004.4	80만곡 음원, 웹TV, 유선 이통 서비스
다음	2003.9	음악전문 포털, 뮤직, 유저 중심도 높음
네이트	2003.8	무선기동 검색, 메신저 연계성

음악서비스 회원 확보에 유리하다.

아후코리아와 네오위즈 등 중위권 포털들도 순위 역전을 위한 핵심 콘텐츠로 음악시장을 잡고 선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후코리아(대표 이승일)는 지난 4월 음악포털 '비트박스'를 시저해 회원 100만명, 유료가입자 9만명을 확보하며 급성장했고 다음달부터 MP3다운로드 서비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아후는 도메인미디어와 음원제작자협회 등 국내 음반사는 물론

유니버설뮤직과 BMG, 소니 등 외국 음반사와 전략적으로 제휴해 국내 최대 수준인 80만곡 음원을 확보했고 검색이나 뉴스, 메일, 블로그 등 서비스와 연계해 포털 강점을 과시했다.

네오위즈는 지난해 9월 음원물 개입제 아닌 디지털발을 인수해 인터넷포털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온라인음악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 유료 가입자만 5만명을 확보했다.

네오위즈는 최근 민관합동으로 조성된 100억원 음악전문 펀드에 총 25억원을 투자해 시장 선점의 지름길을 택했다.

네오위즈는 이달에 음원전송속도와 다운로드 음원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 '유코온'을 독립 음악포털로 개편할 예정이다.

온라인음악시장은 온라인광고와 전자상거래, 게임 순서로 수익원을 발굴하고 있는 인터넷포털 분야에서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다.

네이트닷컴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유원호)도 지난해 9월 온라인닷컴(aod.nate.com) 서비스를 시작해 벨소리 킬러를 내세웠고, 메신저와 연계한 서비스를 내놓았다.

인터넷업계에서는 회원 100만명을 확보한 넥소 엔터테인먼트도 포털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막대한 회원 기반과 자본력을 갖춘 대형 인터넷포털이 기존 서비스와 연계된 서비스에 나선다면 온라인음악시장 재편도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이한우기자

정부출자 창투 1200억 부실

중기청 200억원 전용인수펀드 설립추진

올해부터 5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정부 출자 창투조합의 미회수 부실자산 규모가 1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 출자 창투조합 가운데 2010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창투조합은 총 172개에 출자금액 총액은 2010년까지 총 6240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5004억원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5년 동안 전체 회수 금액 중 약 20%가 미회수 원금자산에 대한 부실자산으로 남을 것이라는 예가다.

정부가 신원한 80% 회수율을 2006년 이후 투자 회수 시나리오를 매우 낙관적으로 잡아 창투조합 손실분과 이에 따른 국고 손실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알려 내는 수단이 앞으로 정부 운용자산에 대해 미회수분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와 내년이 만기가 돌아오는 79개 창투조합에 대한 정부와 창투사 출자총액은 2244억원이나 현금 회수분은 689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에서는 160억원가량 주식 현금 자산을 추가적으로 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감안한다 해도 내년까지 도래하는 정부 출자 창투조합 손실분은 무려 61.72%에 달하는 셈이다.

정부는 창투사들이 결정한 창투조합에 대해 최대 50%까지 재검토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고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정부 출자 창투조합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에 대한 처리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부실자산인수 전용펀드(Distressed Fund)를 연내에 설립해 창투조합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자산인수 전용펀드 운용 규모

는 2009년으로 운용기간은 7년 이상, 정부 재검토금 총액 규모는 조합 결산액 대비 80% 안팎으로 약 1600억 규모 국고와 창투조합 부실 자산인수를 위해 사용된다.

부실자산인수 전용펀드는 창투사 부실자산을 해소해 강제손실분을 손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제 지원을 하고 창투사 경영능력 증대 투자 자금 확보를 지원하며 창투사 자산에 대한 전문 관리를 통해 부실기업 조기 퇴출과 회생 가능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한 경제 활력을 높여겠다는 설립 취지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펀드 중 50%는 창투사 또는 창투조합이 회수에 실패한 부실자산인수와 부실기업이 발행할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되며 나머지는 이를 기업 인수·합병(M&A)과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관련 관리비용으로 활용된다.

이근우기자

대형 우주망원경

한·일 공동 개발

한국과 일본이 세계 3대 우주망원경의 하나인 지름 3.5m, 무게 2.6t의 대형 적외선 우주망원경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일본우주과학 연구본부(ISAS)가 2012년 발사할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우주망원경 'SPICA'(Space Infrared Telescope for Cosmology and Astrophysics)를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력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해 상호협력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적외선 망원경인 SPICA는 수명이 끝난 허블우주망원경 이후 2010년대에 등장할 미국의 JWST(지름 6m), 유럽의 HSO(지름 3.5m)와 함께 세계 3대 우주망원경의 하나로 예상되고 있다.

SPICA는 2012년 발사될 지구에서 태양의 반대 방향에 150만km 지점에 머물며 은하와 별, 외계 행성, 우리 태양계 등의 형성과 진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관측 자료를 보내줄 예정이다.

천문원은 SPICA 사업 참여에 앞서 ISAS가 2005년 발사할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적외선 우주망원경 'ASTRO-F'사업에도 참여해 우주망원경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박수중 천문원 박사는 "일본 SPICA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우주과학 기술의 국제적 도약을 도모하고 첨단 적외선 기술을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욱기자



공생생태학교

대선주주 롯데계열 편입

롯데계열은 신준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대선주주 주식 33만8509주를 취득함에 따라 대선주주가 롯데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고 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부회장은 대선주주 지분 50.79%를 보유하게 됐으며 롯데그룹 계열사는 36개에서 37개로 늘었다.

이공계 인력재능박람회

기업연구소 1단계 돌파를 기념하는 이공계 우수인력박람회가 9월 13~14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업 졸업(예정)자, 병역복합 전문 연구요원 및 미취업 우수인력 등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체육관과 문화관에서 개최한다.

(02)2185-8894

우먼 리더십 캠프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회장 정명금)이 1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정명 마리아스 리조트에서 '제4회 우먼 리더십 캠프'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여직원 관계자는 "꿈을 향한 끝없는 도전"을 주제로 여성 참여에 도움이 될 창업특강과 수상관련 등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여성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을 통해 창업의 꿈을 이어주게 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369-0931-2

'과학과 사회' 여름캠프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고리대 과학기술 협동과정과 공동으로 2004 '과학과 사회'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학과 사회'를 보는 새로운 관점 "문화로서의 과학" 등 과학과 사회 관계에 대한 강의가 제공된다.

캠프를 원하는 사람은 10일까지 행사 홈페이지(www.stsacademy.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작용 우려 의약품 더 있다"

안명옥 의원, 일부 피부약·주사제·발기부전 치료제 지적

최근 판매 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외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은 물론 부작용 현상을 일으키는 H사 D형질(피부과 치료제), 금성혈심증을 일으키는 B사 A주사제 등 95건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모두 321건으로 이 중 하루 때 반영되지 않은 부작용 사례로 식약청이 관찰하고 있는 것도 9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2년 부작용 보고 54건 중 19건은 관찰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에 대한 시추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부작용 사례 중 발기부전 치료제 관련 부작용 건수는 모두 182건으로 전체 부작용 사례 가운데 5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은 이미 '하기반영'된 의약품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발기부전 치료제 부작용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정식 식약청 의약품

관리과장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는 도입할 때부터 처방 없이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됐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시판금지 부작용 사례는 모아서 식약청에 보고하라는 '감제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며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사망했다는 3명 중 1명은 비아그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이 환자는 98년부터 심근경색과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비아그라를 복용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며 "발기부전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은 의사 처방에 따르지 않고 정격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유용하·박용환기자

있는 것도 9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과장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는 도입할 때부터 처방 없이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됐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시판금지 부작용 사례는 모아서 식약청에 보고하라는 '감제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며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사망했다는 3명 중 1명은 비아그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이 환자는 98년부터 심근경색과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비아그라를 복용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며 "발기부전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은 의사 처방에 따르지 않고 정격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유용하·박용환기자